



한국 일간지 시사비평 칼럼은 무엇을, 어떻게 조명하는가?

미디어 구성주의를 중심으로 살펴본 6개 정부별 내용분석

김창숙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위촉연구원

배정근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이완수 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

What and How Do Korean Newspaper Columns Cover?*

A Content Analysis of 6 Governments with a Focusing on Media Constructionism

Changsook Kim**

(Post Doctorial Fellow, Moon Soul Graduate School of Future Strategy, KAIST)

Jung Kun Pae***

(Professor, School of Communication & Media, Sookmyung Women's University)

Wansoo Lee****

(Professor, Broadcasting & Media Studies, Dongseo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opinion columns in South Korea's major daily newspapers construct social agendas based on constructionism, and to examine whether they adequately fulfill their social responsibility to provide diverse agendas for public discussion. To this end, we analyzed the main themes, subthemes, and framing of 1,729 content of representative columns written by internal and external writers of newspapers published on the opinion pages of <Kyunghyang Shinmun>, <Chosun Ilbo>, <JoongAng Ilbo>, and <Hankyoreh> over the 28 years of six administrations from 1993 to 2021, categorized by newspaper, government, government period, and ideology of the newspaper and government. The analysis showed that Korean newspaper opinion columns cover political agendas the most, and among them, they are biased toward the presidential agenda, failing to provide a diverse agenda for the public sphere. Still, in terms of detailed agenda, the presidential, economic crisis, social conflict, pop culture, history, and science agendas tended to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Dongseo Cluster Project" of Dongseo University in 2022 (DSU-20220003) (이 논문은 2022년도 동서대학교 "Dongseo Cluster Project"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DSU-20220003)).

** changchangh@naver.com

*** jkpa@sm.ac.kr

**** wansoo1960@gmail.com, corresponding author

decrease. In contrast, party politics, health and welfare, and social security agendas tended to increase. When looking at agendas by government, we found that political agendas tended to be covered more during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economic agendas during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and social agendas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compared to other administrations. Culture-related agendas increased significantly during the Roh Moo-hyun, Lee Myung-bak, and Moon Jae-in administrations compared to other periods. While the differences in agenda by the government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etails of the agenda. Conservative newspaper columns focused more on the political agenda, while liberal newspaper opinion columns focused more on the social agenda. Also, the presidential agenda, which was more prevalent in the early years of the government, decreased toward the end of the government, while the party's political agenda increased. Regarding issue framing, the responsibility frame was the most common, and the framing of major daily newspapers' columns differed depending on the newspaper, government, and period. Specifically, Korean newspapers constructed their issue framing differentially through two axes of their political ideologies and reflection of social reality. The conservative Chosun Ilbo used the human interest frame, the JoongAng Ilbo used the moral evaluation frame, the Kyungyang Shinmun used the responsibility attribution frame, and the Hankyoreh used the economic consequences frame more than other newspapers. In addition, while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frame predominated in the early years of the government, the human interest frame appeared more frequently in the second half of the government. This demonstrates the tendency of the so-called "press-government parallelism," where media coverage operates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ideolog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South Korean current affairs columns are failing to reflect the diversity of issues in the public sphere. We suggest that Korean newspapers should select a diverse range of issues i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column issues and avoid excessively highlighting political issues. It is necessary to avoid the bias of issues and perspectives that can make them appear like political instigators.

Keywords: Constructionism, Public Sphere, News Agenda, News Frame, Newspaper Column

국문초록

이 연구는 국내 주요 일간지 시사 비평칼럼이 어떤 사회적 의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구성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의제를 공론장에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관찰하였다. 이를 위해 1993년부터 2021년까지 28년간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신문의 오피니언면에 게재된 주요 사내외 시사 칼럼 1,729건의 주제의, 세부 의제, 그리고 프레임의 신문사별, 정부별, 정부 시기별, 신문과 정부의 이념별로 구분해 내용 분석했다. 분석결과, 국내 신문 시사 칼럼은 정치 의제가 가장 많았으며, 그 가운데서도 대통령 의제에 편중되어 사회 공론장에 다양한 의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보수신문 칼럼은 '정치 의제'에, 진보신문 칼럼은 '사회 의제'에 더 비중을 두고 있었다. 또 정부 출범 초기에 많았던 대통령 의제가 정부 후반부로 갈수록 감소하는 대신에, 정당 정치 의제가

증기했다. 의제 프레임에 있어서는 책임귀인 프레임이 가장 많았다. 보수지인 〈조선일보〉는 인간적 흥미 프레임을, 〈중앙일보〉는 도덕적 평가 프레임을, 〈경향신문〉은 책임귀인 프레임을, 그리고 〈한겨레〉는 경제적 결과 프레임을 타 신문사보다 더 많이 사용했다. 또한 정부 초기에는 책임 귀인 프레임이 주로 등장하다가, 정부 후반부로 가면서는 인간적 흥미 프레임이 더 빈번하게 등장했다. 의제 선택의 편향성, 정치 의제의 과도한 편중, 그리고 의제의 정치적 편향성은 한국 신문 시사 칼럼의 한계로 지적되었다.

핵심어 : 구성주의, 공론장, 기사 의제, 프레임, 신문 칼럼

1. 서론

오늘날 다양한 뉴스 장르가 제공되고 있지만, 신문 시사비평 칼럼(이하 시사 칼럼)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핵심적인 의견 공론장 역할을 한다. 특히 정치·사회·경제적 현안을 논평하는 시사 칼럼은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공적 의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주장과 의견, 그리고 해석과 대안 제시를 통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언론이 현실을 규정하고 해석하는 힘은 뉴스보도보다 논평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뉴스 보도는 표면상으론 사실관계에 충실한 객관적 보도를 지향하는 편이지만, 논평을 하는 시사 칼럼은 그런 제약 없이 주관적인 주장과 의견, 그리고 해석을 자유롭게 펼친다(Firmstone, 2019).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공적 의제를 설정함으로써 여론의 향방은 물론, 정책 의사결정에도 깊숙이 관여한다. 신문에서 논평 기능을 담당하는 오피니언면은 “저널리즘의 객관주의 이상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지면”(Wahl-Jorgensen, 2004)이라고 칭하는 것도 시사 칼럼이 강력한 의견 공론장 기능을 한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그럼에도 뉴스 연구자들은 뉴스 내용분석, 뉴스 생산 및 소비자 분석, 신문사 조직분석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신문과 관련된 분석을 해왔지만, 시사 칼럼에 대한 분석은 거의 수행하지 않았다.

전자 매체 등장과 온라인 미디어 환경으로 뉴스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 신문들은 오피니언 지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상업적 경쟁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취해왔다(이재경, 2000; Ciofalo & Traverso, 1994). 국내 신문들도 1990년대 중반 주요 일간지들을 중심으로 오피니언 지면을 별도로 신설한 이후 지속적으로 지면을 늘려와 최근에는 평일 기준 평균 4개 지면에서 많게는 7개 지면까지 발행할 정도로 시사 칼럼의 비중이 커졌다(박지은, 2019). 신문의 오피니언면은 독자들의 열독률과 관심이 매우 높은 지면의 하나이며(김달아, 2016), 특히 미국 뉴욕타임스의 경우 하루 중 가장 많이 읽은 기사의 하나로 오피니언 콘텐츠가 꼽히기도 한다(Wasserman, 2022). 그만큼 신문 시사 칼럼의 사회적 관심과 비중이 커졌다는 뜻이며, 뉴스 연구에서 신문 시사 칼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회적 의제설정과 여론 형성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신문 오피니언 지면, 특히 칼럼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빈약한 편이다(Ciofalo & Traverso, 1994; Day & Golan, 2005). 칼럼에 대한 국내 학술 연구는 2010년 즈음부터 등장해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주로 칼럼 필진의 편향성(권장원·최철웅·이병철·장하용, 2007; 박선아·김경모·고민경, 2010; 임연희, 2011), 특정 주제에 대한 공시적 분석(임양준, 2013; 최종환·곽대섭·김성욱, 2014) 언론사와 칼럼 논조의 이념적 관련성에 대한 양적·질적 연구(김병건, 2016; 백영민·김희정·한규섭·장슬기·

김영석, 2016; 이원섭, 2010), 그리고 오피니언면을 담당하는 편집자의 인식을 조사한 질적 연구(배인준, 2003)가 일부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 칼럼이 어느 의제를 사회가 주목해야 할 사안으로 현저하게 부각(salience)시키고, 어떠한 인식의 틀(framing)로 해석하는지와 같은 칼럼의 핵심기능에 대한 연구는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지금까지 수많은 뉴스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신문 시사 칼럼이 구성하는 의제와 프레임의 특성을 장기간에 걸쳐 밝혀본 예는 없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한계에 주목해 김영삼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28년간 국내 주요 일간지 시사 칼럼의 의제와 프레임에 대한 구성체계 분석을 통해 언론이 시사 칼럼을 통해 사회적 현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시기와 신문사의 정파성에 따라 칼럼 주의제와 세부 의제, 프레임이 어떻게 차별적으로 구성되어 제시되었는지에 대해 통시적, 공시적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기명으로 주의·주장을 펼치는 시사 칼럼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에 주목해 칼럼 의제와 프레임 구성체계를 신문사, 정부시기, 신문사 정파성 요인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시사 칼럼 연구는 저널리즘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가 무엇인지, 그 의제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는 무엇이며,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학술적으로는 언론의 사회적 현실 구성(agenda setting)과 형성(agenda building)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키고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신문 시사 칼럼을 이 이론에 적용해 연구함으로써 저널리즘 연구의 확장에 기여해 보고자 한다. 실무적으로는 사회적 의견 공간인 신문 칼럼이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 공동체 현실을 어떻게 구성하고, 진단, 평가하는지를 확인하고 칼럼 의제 개선 방안을 비판적으로 제시해 볼 수 있다. 시사 칼럼의 의제와 프레임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문제, 그리고 대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이자 시각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연구할 가치가 크다.

2. 이론적 논의

1) 공적 토론장으로서 시사 칼럼

신문 오피니언 지면(op-ed)¹⁾은 사회구성원들이 공적 의제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와 주

1) 미국 신문에서는 사실이 아닌 의견 기사를 사실면의 맞은 편 지면(opposite the editorial page)에 배치해서 통상

장을 펼치는 공적 토론장을 제공한다(Day & Golan, 2005). 시민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상태로 참여하고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보장되는 공론장(public sphere)으로서 오피니언면의 존재는 숙의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전제조건이기도 하다(Wahl-Jorgensen, 2004; Woods, 2015). 이런 관점에서 신문 오피니언면은 누구에게나 열린 공론장이고, 서로 다른 주장이 경합할 수 있는 의견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중요한 소통 공간이다. 신문 오피니언면의 핵심적인 장르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사회 문제에 대해 개인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사 칼럼이다(Adeoye, 2014; Mikhailova, 2011). 신문 시사 칼럼은 참여 민주주의의 도구로서 대중들에게 자신의 가치 중심적 견해를 알리는 통로로 기능한다(Hoffman & Slater, 2007).

신문 시사 칼럼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오피니언면이 표방하는 공적 토론을 위한 공론장의 기능이 작동하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주제에 주목해왔다. 칼럼을 집필하는 필진의 특성, 필진을 선택하는 언론사의 관행, 그리고 칼럼 내용에서 다양한 견해의 반영 여부 등에 관해서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신문 시사 칼럼은 소수의 전문가나 교수 같은 엘리트 계층이 주로 작성하며(권장원 등, 2007; 백영민 등, 2016; 허행량, 2000), 여성이 과소 재현되고(박선이 등, 2010), 논란이 되는 이슈의 찬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며(Day & Golan, 2005), 신문사의 논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칼럼을 게재함으로써 의견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Ciafalo & Traverso, 1994). 국내 시사 칼럼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필진 특징은 내부 언론인보다 외부 전문가의 비중이 높고, 외부 필진은 대학교수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으며, 여성 필진이 극히 적어 결과적으로 기득권층의 견해를 주로 반영한다는 점이다(권장원 등, 2007; 박선이 등, 2010; 백영민 등, 2016; 이재경, 2000). 지역신문의 칼럼을 분석한 임연희(2011)는 필진 가운데 대학 총장, 전·현직 정치인, 광고주가 상당 부분을 차지해 개인 업적과 사업 홍보에 치중하면서 시사 칼럼면이 광고·홍보의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필진의 편향성 때문에 시사 칼럼의 의제나 내용이 지면에 다양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데이와 골란(Day & Golan, 2005)은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의 시사 칼럼 150건을 분석한 결과 사형제도, 동성결혼과 같은 사회적 의제에 대해 찬반 의견을 고르게 반영하지 못해 다양성이 부족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남아프리카 선데이 타임스(Sunday Times)의 오피니언면 칼럼 의제 선택과정을 연구한 세리노(Serino, 2010)는 신문사 내부에서 정해놓은 저널리즘의 규범에 따라 뉴스로서 가치가 있는 의제가 칼럼 의제로 주로 선택된다고 밝혔다. 오피니언면 편집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도 편집자들은 다양성을 고려하지만 신

적으로 op-ed로 부른다.

문사의 논조와 반대되는 글은 실을 수는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배인준, 2003). 시사 칼럼의 이러한 현실구성은 무엇보다 신문사들이 자신들의 논조와 다른 칼럼을 실어 다양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비슷한 논조의 칼럼을 선택해 색깔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이다(Golan & Wanta, 2004). 시사 칼럼 의제는 결국 신문사가 공적 토론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게이트키퍼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택된다. 그러나 어떤 공적 토론 의제가 시사 칼럼의 지면을 구성하고 있는지 확인된 적은 없다.

2) 언론의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칼럼 의제

언론이 현실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한 이론적 틀인 구성주의 이론은 저널리즘 연구에서 언론이 사회적 의제(agenda)를 어떻게 구성하고 강조하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해석적 틀로 활용되어 왔다(Berger & Luckmann, 2016; Tuchman, 1978). 구성주의(constructionism) 관점에서 보면 언론은 보도와 논평을 통해 현실 세계를 적극적으로 재구성하고 재해석한다(Tuchman, 1978). 다양한 사회적 환경 요인의 제약 속에서 언론이 재구성한 현실은 우리의 머릿속 세상의 상(像)을 만들거나 외부세계를 인식하는 틀을 제공한다(Entman, 1991; Lippmann, 1922). 언론의 뉴스 보도는 현실의 단순한 반영이 아니라, 신문사 소유구조, 경제적·문화적·이념적 변수를 고려해 재구성된 산물이다(Nisbet, 2008; Weaver & Elliott, 1985),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와 그 의제의 속성을 선택, 강조, 배제 그리고 상술(Tankard, 2001)하는 식으로 사회적 의제 형성(social agenda building) 기능을 한다. 언론의 구성주의 이론은 미디어 의제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독립변수, 즉 현실 세계 상황과 이벤트, 그리고 정치 행위자의 활동에 주목한다(Sheafer & Weimann, 2005). 현실 세계나 이벤트의 변화와 미디어 의제(혹은 이슈)의 위계는 상호 관련성이 있다. 사회적 환경 가운데 어떤 상황이 나빠진다는 신호가 나타나면, 미디어는 그 문제나 의제에 더 주목하고 반응한다. 또한 정당이나 선거후보자와 같은 정치 주체자들의 특정 의제나 전략이 미디어에 의해 의제화되기도 한다(Sheafer & Weimann, 2005).

의제 형성 이론도 결국은 뉴스 조직이나 저널리스트들이 특정 이벤트, 이슈, 혹은 취재원을 선택하고 강조하는 재구성 과정을 설명해준다(Nisbet, 2008). 미국 사회학자 파크(Park, 1922)는 뉴스 담당 에디터가 매일 일어나는 수많은 이벤트 가운데 특정 뉴스 아이টে를 다른 아이টে보다 더 중요하고, 더 흥미롭다고 판단해 공표하기 위해 끊임없이 선택과 구성의 과정을 거친다고 말했다. 이처럼 언론은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의제 가운데 보도의 현저성을 통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의제를 선택, 구성해 제시한다. 따라서 미디어에 의해 선택된 특정 의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는 반면, 나머지 수많은 의제들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지거나 잊혀진다.

언론이 현실을 규정하고 해석하는 힘은 뉴스의 보도보다는 시사 칼럼과 같은 논평에서 더 두드러진다. 신문 시사 칼럼은 사회 현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하는 과정에 필자가 특정 의제를 강조하고, 그 의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진단,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물론 전체 오피니언면을 조율하는 편집자들이 공적 토론 대상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제를 선택한다(Serino, 2010). 신문 칼럼은 하버마스(Habermas, 1991)가 제안한 공론장(public sphere) 기능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늘 보편적인 공론장으로서 기능한다는 보장은 없다(Fraser, 1990). 신문사 편집국이 내부적으로 칼럼 의제를 선택하고, 구성하는 과정에 특정 의제가 과도하게 강조되거나, 정치적 권력 집단에 의해 지배되거나, 특정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편향적으로 의제 구성이 이뤄지기 때문이다(Serino, 2010). 이 과정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 여야 정치집단의 활동은 칼럼의 주요 의제로 채택되어 다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신문 칼럼을 통해 드러난 의제는 사회 현실 속에서 특별히 관심을 끌거나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환경, 그리고 군사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조직되고 재구성된 것들이다(Serino, 2010). 언론은 이처럼 현실 속에서 특정 시점에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평가되는 특정 이벤트나 이슈를 더 자주 주목하고, 더 크게 강조하는 선택과 구성의 과정을 거쳐 대중들에게 전달한다(Lau, 2012; McCombs & Shaw, 1972). 언론이 선택, 강조, 그리고 구성하는 미디어 의제는 사회적 공론장을 통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큰 정치 사회적 문제로 전환된다(Ansolabehere & Iyengar, 1994). 뉴스 이용자들은 언론이 강조하고, 구성하는 의제를 통해 그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미디어가 수행하는 현실의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은 곧 세계의 창조자이자, 생산자로 활동하는 변증법적 과정이다(Adoni & Mane, 1984). 그러나 언론이 의제를 편향적으로 선택할 경우 사회적 공론 기능은 물론 현실 여론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본 연구가 칼럼의 의제 구성에 주목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뉴스에서 의제나 프레임 구성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절차적 관행이다(Gitlin, 1980). 언론을 통해 제시되는 보도 의제나 프레임은 정지되어 있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주(變奏)한다(이완수·심재웅·심재철, 2008; Chyi & McCombs, 2004). 언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적 이슈의 특별한 속성을 강조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끈다(Muschert & Carr, 2006). 사회적으로 논쟁적이고, 갈등적인 이슈일수록 의제나 프레임은 더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엔트만(Entman, 1993)은 논쟁적인 뉴스에 대한 프레임의 사회적 기능을 문제정의(define problems), 원인진단(diagnose cause), 도덕적 평가(moral judgements), 그리고 해법제시(suggest remedies)

로 단계적으로 구성한다는 가설을 제시했는데, 이는 언론이 어떤 사건을 보도할 때 그 사건이 진행되는 단계마다 강조하는 프레임의 특징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간 흐름에 따른 언론의 보도 의제나 프레임 변화는 시사 칼럼의 구성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칼럼은 그 시점마다 주요한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의제나 프레임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언론의 보도 의제나 프레임 변화는 일반적으로 “저널리즘 5W 원칙에서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는 시간(time) 프레임과 어디서, 누가, 무엇, 그리고 왜를 포함하는 공간(space) 프레임을 통해 관찰된다”(Chyi & McCombs, 2004). 칼럼에서 부각되는 의제나 프레임은 결국 시공간적 차원에서의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언론은 크게는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를 구성해 강조하는 한편, 이들 의제의 세부 의제들(sub-agendas)을 동시에 강조한다(Takeshita & Mikami, 1995). 이에 선행연구자들은 언론이 보도한 사회적 주요 의제와 함께 세부 의제에 주목해왔다. 예를 들어 벤톤과 프레지어(Benton & Frazier, 1976)는 언론이 보도한 많은 의제 가운데 경제 의제의 세부 의제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언론이 강조하는 경제 의제의 두 가지 속성으로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과 ‘경제정책을 위한 찬반논리’를 제시함으로써 경제뉴스가 다루는 세부 의제를 살폈다. 또 독일 언론이 보도한 외국인 공격과 이민자 신청 뉴스를 분석한 브로시우스와 엡스(Brosius & Eps, 1995)는 사회적 의제의 세부 의제를 밝힌 최초의 사례이다. 브로시우스와 엡스는 이 연구에서 재판, 외국인, 폭력, 그리고 정치적 행위가 독일 언론이 주목한 독일 이민자 문제에 대한 세부 의제임을 밝혔다. 로저스 등(Rogers et al., 1995)은 사회적 의제의 세부 의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들 연구자들은 정부 정책과 윤리에 이르는 모두 13가지 이슈(예: 과학발전, 에이즈 의무 검진, 에이즈에 감염된 유명인사와 어린이 등)가 에이즈(AIDS) 의제와 관련된 세부 이슈임을 밝혀냈다. 타케시타와 미카미(Takeshita & Mikami, 1995)는 미디어가 구성하는 사회적 일반 의제는 보다 구체적인 세부 의제로 구성된다는 점에 주목해 이를 일반 이슈(general-issues)와 세부 이슈(sub-issues)로 나눠 체계적인 개념화를 시도했다. 타케시타와 미카미는 미디어가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경제, 외교와 같은 사회적 의제를 ‘일반의제로, 일반의제의 하위 개념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대상을 ‘세부 의제로 정의했다. 그동안 일반의제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의 의제 형성이나 의제설정 연구는 많이 이뤄져 왔으나 미디어가 선택해 강조하는 세부 의제를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언론의 의제 형성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언론이 자신들의 이념이나 가치, 매체의 속성, 시기, 그리고 정치적 이념성에 따라 사회적 의제를 다르게 구성한다는 점이다(이완수·신명환, 2020; Nisbet, 2008; Soroka, 2002).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수행된 소로카

(Soroka, 2002)의 의제설정 연구에서 뉴스 의제 현저성은 신문에 따라 달랐다. 이에 대해 소로카는 언론이 결정하는 의제는 편집자의 정치적 신념이나 의사결정 등 다른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다르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또한 매체의 특성에 따른 경제뉴스 의제 형성의 구조적 차이에 주목한 이완수와 신명환(2020)에 따르면, 신문은 경제정책이나 경기동향과 같은 거시경제 의제를, 방송은 시장물가, 주식시장, 금융시장 등 실물경제에 관련된 미시경제 의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다뤘다. 언론은 당시의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Lau, 2012), 뉴스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Chyi & McCombs, 2004) 의제 구성의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한다. 예를 들어 이완수, 양영유, 그리고 배재영(2020)은 20년간 장기 시계열 데이터를 바탕으로 언론이 구성하는 경제 의제와 관련한 세부 의제의 현저성이 매체 특성, 정부 시기, 정부 이념, 경기 상황, 보도 시제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국내 보수신문과 진보신문들이 김대중 정부 이후 이념성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사설과 시사 칼럼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반대되는 정부를 더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연구(송은자·이건호, 2014)를 고려하면 칼럼 필진과 내용 구성에서도 정치적 이념 특성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실례로 4대강 사업, 천안함 사고에 대한 칼럼을 분석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언론의 이념성에 따라 사안에 대한 태도나 프레임이 정치적 유착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권지현·안차수, 2016; 임양준, 2013). 또 원숙경과 문종대(2016)는 지역신문 칼럼이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얽힌 사안에 대해 지역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중앙 일간지의 논조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내 연구 결과들은 대체로 국내 언론이 공적 토론장인 칼럼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물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의 편향성이 두드러짐을 보여준다.

보도 의제나 프레임의 시공간적 변화는 언론과 정부 간의 관계 측면에서도 논의해 볼 수 있다. 언론은 정부 초기에는 권력에 대한 감시견으로서 기능을 하기 보다는 권력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우호적으로 보도하는 이른바 ‘허니문(honeymoon) 보도’ 관행을 보인다(Mellado & Van Dalen, 2017). 그러나 언론의 이런 초기 허니문 보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비판적 보도로 전환된다. 정부 초기에 주목하던 의제나 프레임이 정부 후기로 가면서 전환되고 변화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쟁점 사안을 비판적으로 다루는 시사 칼럼 의제나 프레임의 구성체계가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칼럼 의제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벤트나 이슈들 가운데 선택되어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칼럼 의제의 현저성은 결국 미디어 조직이나 칼럼니스트에 의해 결정되고, 가시화된다고 볼 수 있다(Serino, 2010). 칼럼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일반 뉴스에 비해 더 적극적

이고, 주관적으로 사회적 의제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념이나 가치, 매체 속성, 시기, 정치적 이념성에 따라 사회적 의제가 다르게 구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시사 칼럼은 일반 뉴스와 달리 필자의 개인적 가치, 의견, 관점이 더 두드러지게 반영되는 편이다. 따라서 칼럼이 게재하는 의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차원에서 나아가 그 의제가 현저하게 드러내는 평가와 해석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3) 칼럼의 의제 프레임

언론이 다루는 사회적 의제는 단순히 대상(objects)을 전달하는 기능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은 사람들의 주목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일정한 관점을 담아 뉴스로 전달한다. 언론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생각하는가(what to think about)에서 나아가 어떻게 생각하는가(what to think)에 대한 판단, 또는 평가 기준을 제시한다(Cowart, 2020). 우리가 매일 매스미디어를 통해 노출되는 뉴스는 일정한 지배적 틀, 즉 앵글(angle)이나 프레임(frame)을 통해 세상의 문제를 평가하고 해석한다(Entman, 1991; Neuman, Just, & Crigler, 1992; Semetko & Valkenburg, 1998). 프레임은 현실의 특정한 관점은 선택하고, 현저하게 드러내는 구성과정으로 어떤 측면을 무시하고 배제함으로써 보다 이해하기 쉬운 해석적 패키지(interpretive packages)를 제공한다(Entman, 1993). 즉 언론은 수용자의 관심을 유지하고, 이벤트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이를 단순화하기 위해 관점을 제시하며(Valkenburg, Semetko, & De Vreese, 1999), 사회 문제에 대해 특별히 강조할 문제를 정의하거나 해석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강력한 기능을 한다(Knight, 1999).

선행 연구들은 뉴스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공통적인 프레임을 확인해 왔다. 예를 들어 뉴만, 저스트, 그리고 크리글러(Neuman, Just, & Crigler, 1992)는 미국 언론의 뉴스 보도 분석을 통해 갈등, 경제적 결과, 인간적 영향, 그리고 도덕성을 가장 보편적인 프레임으로 제안했다. 이 프레임을 바탕으로 세메트코와 발켄부르크(Semetko & Valkenburg, 2000)는 1997년 암스테르담 유럽지역 국가 정상회담 기간 동안 5개의 전국 신문 및 TV 뉴스 기사를 분석하고 지배적인 순서대로 책임귀인, 갈등, 경제적 결과, 인간적 흥미와 도덕성 5개의 뉴스 프레임을 제시했다. 뉴스 프레임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지만, 다수의 연구자들은 위의 다섯 가지 프레임은 연역적 연구의 주요 분석 틀을 자주 사용해 왔다(An & Gower, 2009; Naoroz & Cleary, 2021; Tagle, 2021). 이들 다섯 가지 프레임은 언론이 중시하는 뉴스 가치(news value)에 해당되는 사회적 중요성과 흥미성, 의제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 주체와 행위적 규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O'Neill & Harcup, 2017).

먼저 언론이 자주 다루는 갈등 프레임(conflict frame)은 개인 간, 집단 간 갈등과 대립에 관한 개념이다. 언론은 개인은 물론, 정당, 정부, 국가 등 다양한 주체들 간에 갈등적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갈등 프레임은 이 과정에 비난, 공격, 전쟁, 게임, 경쟁 등의 언어를 통해 특정 문제를 갈등적 프레임으로 재구성한다(Jamieson, 1993). 세메트코와 발켄부르크(Semetko & Valkenburg, 2000)의 연구에서 갈등 프레임은 두 번째로 자주 등장하는 프레임일 정도로 뉴스에서 흔하게 발견된다. 인간적 흥미 프레임(human interest frame)은 이벤트, 이슈, 문제를 재현하는 과정에 감정을 강조하거나 예시를 통해 개인의 문제에 집중하는 개념이다. 언론은 사회적 이슈를 개인화함으로써 뉴스를 극화, 감정화하는 방식으로 내러티브화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nnett, 2016). 책임 프레임(responsibility frame)은 개인, 집단, 그리고 정부에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책임을 귀인하는 관점에서 이슈나 문제를 재현하는 개념이다. 뉴스 미디어는 사회 문제들의 원인과 해결 주체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 특별히 주목한다(Iyengar, 1991; Valkenburg, Semetko, & De Vreese, 1999). 언론은 사회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대한 책임 주체가 정부에 있다는 주장(Kim, Carvalho, & Davis, 2010; Kim & Tellen, 2017; Semetko & Valkenburg, 2000)과 함께 개인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Iyengar, 191)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나 언론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귀인을 자신들의 정치사회적 이념에 따라 다르게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세일 등의 연구(Kim et al., 2010)에 따르면 진보 성향의 신문은 보수신문보다 사회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대한 책임주체를 개인보다 집단(예: 정부)이나 사회적 차원에 더 귀인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경제적 결과 프레임(economic consequences frame)은 사회적 이벤트, 문제, 이슈들이 미치는 경제적 결과가 개인, 집단, 지역, 그리고 국가(혹은 정부) 가운데 어디에 귀인하는지 제안하는 개념이다. 도덕성 프레임(morality frame)은 이벤트, 문제 또는 이슈를 도덕, 사회적 규범이나 종교적 맥락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개념이다.

요약하면 칼럼은 글을 쓰는 필자의 의견과 주장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개인이나 집단 간의 갈등을 둘러싼 논쟁의 문제를 적시하거나, 사회적 쟁점이 경제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강조해 제시하곤 한다. 나아가 사회적 쟁점의 주체자를 극화하고 개인화하는 방식으로 내러티브화하거나 이들의 행위를 도덕적 또는 윤리적 규범 측면에서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칼럼은 다른 어떤 뉴스 장르보다 필자의 의견과 주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의견 공간이라는 점에서(Firmstone, 2019) 의제에 대한 관점(perspectives)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칼럼은 의견과 주장을 펼치는 공론장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일반 뉴스보다 사회 의제를 프레임으로 구성해 강조할 개연성이 더 높다(Ireri, 2013). 예를 들어 칼럼은 사회적 의제에 대한 비판적 관

점과 의견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갈등적 이슈를 더 자주 다루며, 글을 쓰는 사람의 주관적인 인식체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인간적 흥미 요소를 규범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გამ슨(Gamson, 1992)에 따르면, 의견 기사인 칼럼은 뉴스 수용자들에게 밀접성이 있는 요소로 경제적 결과 프레임을 자주 강조한다. 즉 칼럼의 주요 프레임을 살핌으로써 미디어가 무엇을(what), 그리고 어떻게(how) 생각하는가를 공중들에게 보여주는 것에서 나아가 미디어 조직의 정치적 신념이나 편향성이 이들 의제의 프레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를 보면 보수적 성향의 언론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와 관련된 의제에 더 비중을 두는 편이며, 진보적 성향의 언론은 이와 달리 노동, 환경, 인권, 문화 등과 관련된 사회적 의제를 더 많이 다룬다(이완수 등, 2020). 보수적 성향이 강한 언론은 정치나 권력, 기업이나 성장과 같은 그 사회의 지배적 집단의 가치에 대한 프레임을 더 강조하며, 반대로 진보적 성향이 강한 언론은 노동이나 안전, 복지와 배분과 같은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변화와 관련된 프레임에 더 주목한다. 예컨대 교육문제에 대해 보수신문은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성공 지상주의를, 진보신문은 사회적 구조와 관련된 갈등과 불평등의 문제에 더 비중을 두고 프레임을 구성한다(양영유·이완수·배재영, 2021). 그러나 지금까지 일반 보도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현실을 구성하는 신문 칼럼 내용을 대상으로 의제 구성과 속성을 공시적, 통시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했다.

3. 연구 문제

위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김영삼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28년간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등 4개 종합일간지의 대표적 시사비평 칼럼의 내용을 구성주의와 의제 형성 이론을 중심으로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각 칼럼이 다루고 있는 주의제와 세부 의제, 그리고 프레임이 신문사와 정부, 정부의 집권 시기, 신문과 정부의 이념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에 연구문제 1은 한국 주요 일간지 시사 칼럼에 나타난 의제의 구성과 내용을 알아보고, 연구문제 2는 한국 주요 일간지 시사 칼럼이 강조하는 주요 의제별 프레임을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국 주요 일간지의 시사 칼럼에 나타난 의제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1-1. 한국 주요 일간지 시사 칼럼의 주의제와 세부 의제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1-2. 한국 주요 일간지 시사 칼럼 의제는 신문사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3. 한국 주요 일간지 시사 칼럼 의제는 정부 시기(초기, 중기, 말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4. 한국 주요 일간지 시사 칼럼 의제는 신문사와 정부의 정파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한국 주요 일간지 시사 칼럼의 주요 프레임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1. 한국 주요 일간지 시사 칼럼이 강조하는 주요 프레임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2. 한국 주요 일간지 시사 칼럼의 주요 프레임은 신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3. 한국 주요 일간지 시사 칼럼의 주요 프레임은 정부 시기(초기, 중기, 말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4. 한국 주요 일간지 시사 칼럼의 주요 프레임은 신문과 정부의 정파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4.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1) 표집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국내 대표적인 신문인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를 대상으로 1993년 김영삼 정부부터 2021년 문재인 정부까지 6개 정부 28년 가운데 정부별로 초기, 중기, 말기 3년씩 18년 치의 대표적인 사내, 사외 칼럼을 수집했다.²⁾ 이는 김영삼 정부부터 6개 정부(진보 정부 3개, 보수 정부 3개)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민주적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진보(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와 보수 정권(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균형있게 다루기 위함이다. 표집 기간은 대통령 임기 시작일(2월25일)을 감안해 3월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한 해 매달 하루씩, 요일을 바꿔가며 1년에 12일 치의 사내 칼럼과 사외 칼럼 각 한 건씩 수집하는 월 구성 표집 방법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1월 첫 주 월요일, 2월 둘째 주 화요일, 3월 셋째 주 수요일 등으로 월, 주, 요일을 바꿔가며 1년을 구성해 12일치를 표집했다. 해당 날짜에 사내 또는 사외 칼럼만 있는 경우, 다음 날 첫 번째에 해당하는 사외, 사내 칼럼을 표집했으며, 네이버 뉴스

2)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4년만에 중간에 그만두었기 때문에, 말기 1년치는 2017년이 아닌 2016년으로 수집했다.

라이브러리, 빅카인즈, 스크랩마스터에서 수집했다. 통상적으로 대표 칼럼은 사설이 있는 지면과 맞은편 지면 상단에 위치한 칼럼으로 한정했다. 사내 칼럼은 해당 언론사 취재부서 데스크, 논설위원, 기자, 편집인, 고문 등 신문사 내부 인물이 작성한 칼럼을 의미하고, 사외 칼럼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 칼럼’처럼 필자 이름을 내건 기명 칼럼, ‘태평로’(조선), ‘아침햇발’(한겨레)처럼 고정된 칼럼명 아래 여러 필자가 돌아가며 쓰는 칼럼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6개 정부의 대표적인 사내외 칼럼 총 1,729건을 수집해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수집된 분석 대상 칼럼 작성자의 성별은 남성 93.2%(1612건), 여성 6.8%(117건)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문 칼럼의 필진은 사내 인물 48.6%(839건), 사외 인물 51.3%(890건)였다. 사내 필진은 논설위원이 23.4%(404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정치부장 등 편집국 취재데스크가 16.7%(288건)로 두 번째로 많았다. 사외 필진 중에는 교수, 연구원, 학자 등 학계 인물이 39.6%(685건)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문화예술인 2.7%(47건), 언론인 1.7%(30건), 관료 공무원 1.2%(21건), 의료인 0.4%(7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Table 1. Columnist's Occupation of Major Daily Newspaper

(단위: %(건))

구분		빈도
사내	논설위원	23.4(404)
	취재데스크	16.7(288)
	대기자	2.1(37)
	고문	1.5(26)
	기타	4.9(84)
	합계	48.6(839)
사외	학자·연구원·교수 등	39.6(685)
	법조인	1.4(25)
	문화예술인	2.7(47)
	언론인	1.7(30)
	기업인	1.3(23)
	의료인	0.4(7)
	관료·공무원	1.2(21)
	기타	3.0(52)
합계	51.3(890)	
합계		100(1729)

(2) 분석 항목

국내 주요 일간지의 의제와 프레임 알아보기 위해 각 칼럼이 게재된 신문을 대상으로 신문명, 게재 일자, 칼럼의 주의제, 세부 의제, 의제 프레임을 코딩했다. 칼럼이 게재된 신문과 게재 일자 는 분석 대상을 수집할 때 별도로 정리한 파일을 참고해 기록했다. 게재된 신문은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에 각각 1~4까지 숫자를 부여해 입력하고, 추후 <조선일보> 와 <중앙일보>는 보수지로,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진보지로 구분해 분석했다. 칼럼 게재 일자 의 경우 날짜를 연도, 월, 일로 구분해 숫자를 입력하고, 분석시 각 정부의 취임, 퇴임 시기를 고 려해 취임 이후 1년은 초기, 2년 후는 중기, 4년 후는 말기로 구분했다. 예를 들어 김영삼 대통 령의 경우 1993년 2월에 취임하고 1998년 2월에 퇴임한 점을 고려해 1993년 3월~1994년 2월 은 초기, 1995년 3월~1996년 2월은 중기, 1997년 3월~1998년 2월은 말기로 재코딩했다. 분 석 데이터를 수집할 때 대통령 임기 초기, 중기, 말기를 고려해 수집 일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기 본적으로 연도를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대통령이 교체되는 시기, 예를 들어 1998, 2003, 2008, 2013, 2017년은 연도와 월을 모두 확인해 연구자가 직접 정부시기를 분류했다.³⁾

칼럼의 의제는 칼럼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소의제를 의미하며 세부 의제를 분석한 뒤 관련 있는 주제를 묶어 주의제를 구성했다. 세부 의제의 유목은 시계열적 분석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 록 분석 기간의 가장 중요한 뉴스 의제를 선정하는 연합뉴스의 ‘올해의 10대 뉴스’ 180건을 추출 해 이를 세부 의제로 유목화하는 귀납적 방식과 오피니언면 선행 연구의 세부 의제를 검토하는 연역적 방식을 병행해 선정했다. 정당정치, 대통령, 공직비리, 법·행정, 안보·남북관계, 외교, 실 물경제, 경제정책, 경제위기, 경제동향, 사회안전, 사회갈등, 교육, 보건복지, 국제, 삶과생각, 언론·미디어, 대중문화·역사·과학, 기타 17개로 구분하고 1~17까지 숫자를 부여해 코딩했다.⁴⁾ 주의제는 세부 의제 중 관련있는 주제끼리 묶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기타 등 총 6개의 주의제로 재분류하여 1~6으로 숫자를 부여한 후 분석에 활용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의 경우 강 주현·이인욱(2014)의 연구를 참고해 정당정치, 대통령, 공직비리, 법·행정, 안보·남북관계를 ‘정 치’로 구분했고, 경제는 이완수와 신명환(2020)을 참고하여 실물경제, 경제정책, 경제위기, 경제 동향을 ‘경제’로 구분했다. 사회안전, 사회갈등, 교육, 보건복지는 ‘사회’, 외교·국제는 ‘국제’, 언 론·미디어, 대중문화·역사·과학, 삶과 생각은 ‘문화’로 재분류했다. 이들 이슈는 신문사 편집국의 해당 부서에서 다루는 이슈들을 참고해 구분했다.

3) 박근혜 정부의 경우 2017년 탄핵으로 인해 2016년도 1, 2월도 중기로 분류했다.

4) 주의제와 세부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예시는 <부록 1>로 별도로 작성했다.

칼럼의 의제 프레임은 의제별로 강조하는 구체적인 관점이나 입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세메트코와 발켄부르크(Smetko & Valkenburg, 2000)의 의제 프레임 개념을 적용해 책임귀인, 인간흥미, 갈등, 도덕적 평가, 경제적 결과 등 5개로 구분했다. 책임귀인은 사회 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무엇에 있는가를 중심으로 다루는 경우로, 예를 들어 ‘국회의원다운 공약을 하라’(2016. 2. 25. 조선일보), ‘개헌은 당신들의 놀잇감이 아니다’(2017. 3. 6. 한겨레), ‘정치, 검찰, 법원은 이제 바뀌어야’(2021. 2. 15. 경향신문) 등의 칼럼 프레임이 책임 귀인 프레임으로 분류됐다. 인간흥미는 사회 문제를 인간적 흥미 위주로 다루는 경우로, 일화적 이야기가 곁들여진 경우나 예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배삼룡과 함께 사라지는 것들’(2010. 3. 1. 경향신문), ‘거친 세상 헤쳐가기’(2008. 10. 31. 중앙일보), ‘김우중 바로보기’(2001. 2. 15. 조선일보) 등의 칼럼이 인간흥미 프레임으로 구분됐다. 갈등은 사회적 문제를 둘러싼 개인, 집단, 국가 간 갈등이나 대립하는 내용을 주로 다룬 경우로, ‘요란한 강경, 의연한 온건’(2002. 7. 8. 경향신문), ‘우리는 남이다’(1997. 8. 13. 한겨레), ‘문제는 민주당이다’(2002. 8. 10. 중앙일보) 등의 칼럼이 여기에 속했다. 도덕적 평가는 사회 문제에 대한 책임 주체의 행위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경우다. 예를 들어 ‘솔로몬을 보내주소서’(2013. 12. 16. 중앙일보), ‘담장 위를 넘는 재벌들’(2015. 9. 14. 경향신문), ‘등기부 등본을 다시 들추며’(2021. 3. 22. 한겨레) 등이 도덕적 평가 프레임을 가진 칼럼으로 분류됐다. 경제적 결과는 사회 문제를 경제적 손실이나 이득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경우로 ‘왜 꼭 은행합병인가’(2000. 5. 24. 조선일보), ‘중국의 경제개혁’(2013. 8. 10. 중앙일보), ‘왕언니들의 살림정치’(2012. 1. 17. 한겨레) 등의 기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신문 칼럼은 주로 이들 5개 연역적 프레임을 통해 개인, 조직, 국가 간의 갈등, 책임, 흥미, 그리고 경제적 결과의 문제를 조망하며, 정치 주체의 도덕적 정당성이나 윤리성을 비평, 논평한다는 점에서 뉴스 장르보다 프레임 이론을 적용해 연구하기에 적절하다. 의견성 칼럼은 프레임을 통해 정치사회적 담론을 제시하며, 특별히 칼럼니스트가 강조하는 사회적 의제를 드러낸다(Ireri, 2013).

코딩은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하고 언론사 인턴 또는 저널리즘 스쿨 등에서 교육을 받은 코더 두 명이 실시했다. 본 코딩에 앞서 총 4번에 걸쳐 코딩 훈련과 분석 항목 세분화 작업을 실시했다. 회의를 통해 표집한 기사 일부를 함께 코딩하며 분석 항목에서 빠진 것은 없는지, 코딩이 어려운 항목은 없는지를 논의하고 이를 정리한 후, 다시 재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코딩 프로토콜을 완성했다. 코더 간 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 점검은 전체 코딩 대상 자료의 10%가량인 170개 칼럼을 무작위로 추출해 실시했으며, 모든 항목에서 크리펜도르프 알파 값 .7 이상을 확보한 후⁵⁾ 본 코딩을 시작했다. 코딩이 완료된 후에는 숫자로

변환된 값을 바탕으로 SPSS 18.0을 활용해 분석했다.

5. 연구 결과

1) 주요 일간지 칼럼의 주의제, 세부 의제

Table 2. Agendas and Sub-agendas of Major Daily Newspaper Columns

단위: %(건)

주의제	세부 의제	빈도	
정치	정당정치	17.3(299)	50.4(871)
	대통령	11.9(205)	
	공직비리	6.2(107)	
	법·행정	5.8(100)	
	안보·남북관계	9.3(160)	
경제	실물경제	5.7(99)	16.1(278)
	경제정책	4.7(81)	
	경제위기	4.3(75)	
	경제동향	1.3(23)	
사회	사회안전	5.3(92)	14.2(246)
	사회갈등	4.0(70)	
	교육	3.3(57)	
	보건복지	1.6(27)	
국제	외교·국제	9.4(163)	9.4(163)
문화	언론·미디어	3.5(60)	7.2(124)
	대중문화 역사·과학	2.3(39)	
	삶과 생각	1.4(25)	
기타		2.7(47)	2.7(47)
합계		100(1729)	

주요 일간지 칼럼의 주요 의제 구성은 정치 의제에 편향된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등이 이른바 ‘정·경·사 의제’가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정치가 50.4%(871건)로

5) 각 항목에 대한 신뢰도 지수는 기사 주의제 1, 세부 의제 .98, 칼럼의제 프레임 .97, 칼럼 가치 프레임 .95였다.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경제 16.1%(278건), 사회 14.2%(246건), 국제 9.4%(163건), 문화 7.2%(124건), 기타 2.7%(47건) 순이었다. 기타에는 ‘서울이 살기 좋은 도시라구요?’(2007. 6. 28. 한겨레), ‘쉬운 글이 불편한 이유’(2013. 2. 15. 경향신문), ‘민초들의 3.1절’(2013. 3. 4. 조선일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칼럼의 세부 의제를 살펴본 결과, 정당정치(17.3%, 299건)와 대통령(11.9%, 205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의제에 속한 세부 의제를 살펴봤을 때 정치에 속한 모든 세부 의제는 국제를 제외한 다른 주의제의 세부 의제보다 비중이 높았다. 정당정치 세부 의제의 내용은 ‘수요자 중심의 정치를’(2003. 9. 29. 경향신문), ‘지질한 보수, 얇은 진보’(2015. 10. 20. 경향신문)과 같이 주로 각 정당 또는 정당들에 대해 비판과 제언을 하는 내용이었고, 대통령 세부 의제 역시 ‘박근혜의 불신 프로세스’(2013. 6. 27. 한겨레), ‘김대통령이 할 일’(1995. 11. 5. 조선일보) 등 대체로 대통령의 통치 방식에 대한 평가, 비판, 제안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정치 세부 의제 외에는 사회안전, 경제정책, 실물경제, 경제위기 등의 세부 의제가 4~5%대로 나타났다.

Table 3. Agendas and Sub-Agendas of Individual Major Daily Newspaper Columns

단위: %(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기타
	정당 정치	대통령	공직 비리	법 행정	안보 남북 관계	실물 경제	경제 정책	경제 위기	경제 동향	사회 안전	사회 갈등	교육	보건 복지	외교 국제	삶과 생각	언론 미디어	대중 문화 역사 과학	
경향신문	50.1(217)					12.9(56)				16.2(70)				8.5(37)	8.1(35)			4.2(18)
	19.6(85)	11.5(50)	8.8(38)	5.8(25)	4.4(19)	5.5(24)	2.5(11)	3.7(16)	1.2(5)	7.4(32)	5.8(25)	1.6(7)	1.4(6)	8.5(37)	3.7(16)	2.1(9)	2.3(10)	4.2(18)
조선일보	52.2(227)					17.5(76)				13.6(59)				9.7(42)	5.1(22)			2.1(9)
	21.1(92)	10.1(44)	5.5(24)	5.1(22)	10.3(45)	5.1(22)	6.0(26)	5.3(23)	1.1(5)	4.6(20)	2.8(12)	4.4(19)	1.8(8)	9.7(42)	0.7(3)	1.6(7)	2.8(12)	2.1(9)
중앙일보	55.9(238)					16.9(72)				10.6(45)				9.6(41)	4.2(18)			2.8(12)
	16.4(70)	13.8(59)	5.2(22)	8.0(34)	12.4(53)	6.3(27)	4.5(19)	4.2(18)	1.9(8)	2.3(10)	2.8(12)	3.8(16)	1.6(7)	9.6(41)	0.2(1)	2.3(10)	1.6(7)	2.8(12)
한겨레	43.4(189)					17.0(74)				16.6(72)				9.9(43)	11.3(49)			1.8(8)
	12.0(52)	12.0(52)	5.3(23)	4.4(19)	9.9(43)	6.0(26)	5.7(25)	4.1(18)	1.1(5)	6.9(30)	4.8(21)	3.4(15)	1.4(6)	9.9(43)	1.1(5)	7.8(34)	2.3(10)	1.8(8)
합계	50.4(871)					16.1(278)				14.2(246)				9.4(163)	7.2(124)			2.7(47)
	17.3(299)	11.9(205)	6.2(107)	5.8(100)	9.3(160)	5.7(98)	4.7(81)	4.3(75)	1.3(23)	5.3(92)	4.0(70)	3.3(57)	1.6(27)	9.4(163)	1.4(25)	3.5(60)	2.3(39)	2.7(47)

$$\chi^2 = 41.787, df = 15, p < .001$$

$$\chi^2 = 140.066, df = 51, p < .001$$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칼럼의 주의제는 신문사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chi^2 = 41.787$, $df = 15$, $p < .001$). 특히 정치 주제의 경우 이념적으로 보수지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52.2%(227건), 55.9%(238건), 진보지인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50.1%(217건), 43.4%(189건)로 보수지가 상대적으로 정치 의제를 더 많이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 의제는 진보지인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각각 16.2%(70건), 16.6%(72건), 보수지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각각 13.6%(59건), 10.6%(45건)로, 진보지가 보수지보다 사회 의제를 더 많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정치 의제를 다루는 비중은 가장 적었으나, 문화(11.3%, 49건), 사회(16.6%, 72건), 국제(9.9%, 43건) 의제를 다루는 비중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타 신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의제를 다루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한겨레>는 문화 의제를 다른 신문에 비해 많이 다루는 경향이 나타났다. <경향신문> 역시 사회, 문화 주의제를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비해 많이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사별 칼럼의 세부 의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140.066$, $df = 51$, $p < .001$) 구체적으로, <경향신문>은 공직비리(8.8%, 38건), 사회안전(7.4%, 32건), 사회갈등(5.8%, 25건)을 타 언론사에 비해 많이 다루고 있었고, <조선일보>는 정당정치(21.1%, 92건)와 함께 경제정책(6.0%, 26건), 경제위기(5.3%, 23건), 보건복지(1.8%, 8건), 대중문화·역사·과학(2.8%, 12건), 교육(4.4%, 19건) 등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의 경우, 법·행정(8.0%, 34건), 대통령(13.8%, 59건), 경제동향(1.9%, 8건), 실물경제(6.3%, 27건), 안보·남북관계(12.4%, 53건)를 가장 많이 다룬 신문사였고, <한겨레>는 외교·국제(9.9%, 43건), 언론·미디어(7.8%, 34건)를 가장 많이 다룬 신문사였다. 특히 언론·미디어는 타 언론사와 비교해 3배 이상 많이 다루었다.

종합하면, 분석 대상 시사 칼럼에서 보수신문은 정당이나 대통령과 같은 정치 의제와 함께 경제 의제를 칼럼의 주요 소재로 구성한 데 반해, 진보신문은 사회안전이나 재난, 갈등에 대한 사회 관련 의제를 많이 다루면서 문화나 언론·미디어에 관련된 의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Agendas and Sub-Agendas of Major Daily Newspaper Columns by Period of Power

단위: %(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기타
	정당 정치	대통령	공직 비리	법 행정	안보 남북 관계	실물 경제	경제 정책	경제 위기	경제 동향	사회 안전	사회 갈등	교육	보건 복지	외교 국제	삶과 생각	언론 미디어	대중 문화 역사 과학	
초기	48.4(222)					18.7(86)				13.1(60)				9.6(44)	7.2(33)			3.1(14)
	11.5(53)	15.0(69)	6.5(30)	5.9(27)	9.4(43)	5.4(25)	6.1(28)	5.4(25)	1.7(8)	3.5(16)	5.7(26)	2.8(13)	1.1(5)	9.6(44)	1.5(7)	3.3(15)	2.4(11)	3.1(14)
중기	51.7(282)					14.3(78)				14.9(81)				9.7(53)	7.0(38)			2.4(13)
	15.6(85)	13.0(71)	6.8(37)	5.3(29)	11(60)	6.4(35)	3.5(19)	3.7(20)	0.7(4)	5.7(31)	4.2(23)	3.3(18)	1.7(9)	9.7(53)	1.7(9)	2.9(16)	2.4(13)	2.4(13)
말기	53.6(294)					13.3(73)				15.0(892)				9.1(50)	6.6(36)			2.4(13)
	25.0(137)	7.8(43)	5.3(29)	7.3(40)	8.2(45)	4.4(24)	4.0(22)	3.5(19)	1.5(8)	6.8(37)	3.3(18)	2.9(16)	2.0(11)	9.1(50)	1.5(8)	3.6(20)	1.5(8)	2.4(13)
합계	51.4(798)					15.3(237)				14.4(223)				9.5(147)	6.9(107)			2.6(40)
	17.7(275)	11.8(183)	6.2(96)	6.2(96)	9.5(148)	5.4(84)	4.4(69)	4.1(64)	1.3(20)	5.4(84)	4.3(67)	3.0(47)	1.6(25)	9.5(147)	1.5(24)	3.3(51)	2.1(32)	2.6(40)

$\chi^2 = 8.266, df = 10, p = n.s.$

$\chi^2 = 68.654, df = 34, p < .001$

각 대통령 집권 시기를 초기, 중기, 말기로 구분해 주의제, 세부 의제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주의제의 경우 정치 주제 비중이 초기에서 말기로 갈수록 다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48.4%, 222건 → 51.7%, 282건 → 53.6%, 294건). 경제, 문화 기사는 말기로 갈수록 모두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chi^2 = 8.266, df = 10, p = n.s.$)

세부 의제의 경우, 집권 초기에서 말기로 갈수록 대통령, 경제위기, 사회갈등, 대중문화·역사·과학 의제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고, 정당정치, 보건복지, 사회안전 의제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정당정치는 집권 초기에 비해 말기에 2배 이상 증가했고, 대통령 의제는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chi^2 = 68.654, df = 34, p < .001$)

Table 5. Agendas and Sub-agendas of Major Daily Newspaper Columns by Government

단위: %(건)

구분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기타
	정당 정치	대통령	공직 비리	법 행정	안보 남북 관계	실물 경제	경제 정책	경제 위기	경제 동향	사회 안전	사회 갈등	교육	보건 복지	외교 국제	삶과 생각	언론 미디어	대중 문화 역사 과학	
김영삼	56.7(136)					15.8(38)				14.2(34)				5.8(14)	5.4(13)			2.1(5)
	18.8(45)	17.9(43)	5.8(14)	5.8(14)	8.3(20)	3.8(9)	7.1(17)	3.3(8)	1.7(4)	5.0(12)	3.8(9)	3.8(9)	1.7(4)	5.8(14)	1.7(4)	2.5(6)	1.3(3)	2.1(5)
김대중	53.1(137)					18.6(48)				10.5(27)				10.5(27)	4.3(11)			3.1(8)
	17.1(44)	7.4(19)	5.4(14)	9.7(25)	13.6(35)	3.9(10)	5.4(14)	8.1(21)	1.1(3)	2.7(7)	6.2(16)	1.2(3)	0.4(1)	10.5(27)	0.8(2)	2.7(7)	0.8(2)	3.1(8)
노무현	49.9(189)					15.6(59)				13.2(50)				10.0(38)	7.9(30)			3.4(13)
	16.1(61)	12.1(46)	5.0(19)	6.1(23)	10.6(40)	7.7(29)	3.4(13)	2.9(11)	1.5(6)	4.2(16)	3.4(13)	4.7(18)	0.8(3)	10.0(38)	1.1(4)	4.2(16)	2.6(10)	3.4(13)
이명박	49.2(145)					15.9(47)				13.9(41)				9.2(27)	9.5(28)			2.4(7)
	20.7(61)	11.9(35)	4.1(12)	4.1(12)	8.5(25)	6.1(18)	3.4(10)	5.8(17)	0.7(2)	6.4(20)	3.1(9)	2.7(8)	1.7(5)	9.2(27)	1.0(3)	6.8(20)	1.7(5)	2.4(7)
박근혜	54.5(103)					16.4(31)				14.3(27)				6.9(13)	5.3(10)			2.6(5)
	22.2(42)	13.8(26)	8.5(16)	4.2(8)	5.8(11)	6.3(12)	4.2(8)	4.2(8)	1.6(3)	4.2(8)	4.8(9)	3.2(6)	2.1(4)	6.9(13)	1.1(2)	1.6(3)	2.6(5)	2.6(5)
문재인	43.1(124)					13.9(40)				19.4(56)				12.5(36)	9.0(26)			2.1(6)
	11.8(34)	10.1(29)	8.7(25)	5.2(15)	7.3(21)	5.6(16)	4.5(13)	2.8(8)	1.0(3)	9.0(26)	4.5(13)	2.8(8)	3.1(9)	12.5(36)	3.5(10)	2.1(6)	3.5(10)	2.1(6)
합계	50.6(834)					15.9(263)				14.3(235)				9.4(155)	7.2(118)			2.7(44)
	17.3(287)	12.0(198)	6.1(100)	5.9(97)	9.2(152)	5.7(94)	4.5(75)	4.4(75)	1.3(21)	5.3(88)	4.2(69)	3.2(52)	1.6(26)	9.4(155)	1.5(25)	3.5(58)	2.1(35)	2.7(44)

$\chi^2 = 37.400, df = 25, p = n.s.$

$\chi^2 = 145.827, df = 85, p < .001$

정부별 주요 일간지 시사 칼럼의 주의제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정치 의제가 가장 많았고, 특히 김영삼 정부 시기 정치 의제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많을 정도로 두드러졌다. 경제 의제는 김대중 정부 시기에 다른 시기보다 3% 포인트 정도 많이 다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 개혁, 외환위기(IMF)로 인한 고통 분담과 노사 문제, 규제 완화, 불황 극복 등 IMF 상황과 관련된 주제였다. 사회 의제는 대체로 13% 정도였으나, 문재인 정부 시기에 19.4%로 5%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쌍용차 23번째 죽음 막으려면’(2012. 4. 17. 경향신문), ‘변희수라는 이름’(2021. 10. 13. 중앙일보), ‘날씨가 길을 잃

다(2015. 12. 8. 한겨레) 등 대체로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와 정의, 환경, 교육에 대한 문제였다.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다른 정부에 비해 문화 관련 주의제가 대폭 증가한 특징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chi^2 = 37.400$, $df = 25$, $p = n.s.$)

정부별 세부 의제를 살펴본 결과,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대통령, 경제정책 의제가 두드러졌으며,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안보·남북관계와 외교·국제 의제가 많이 발견됐다. 특히 외환위기가 본격화된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경제위기 의제가 두드러지게 많은 가운데,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갈등 의제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 외환위기가 시작된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경제정책 의제가 다른 정부에 비해 뚜렷이 높게 나타났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언론·미디어 주제,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공직비리와 정당정치가 다른 정부에 비해 많이 다뤄졌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사회안전과 보건복지, 외교·국제, 대중문화 세부 주제가 다른 정부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부별 세부 의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chi^2 = 145.827$, $df = 85$, $p < .001$)

Table 6. Differences in Column Agenda and Sub-agenda Between Major Daily Newspapers and the Government's Political Orientation

단위: %(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기타
		정당 정치	대통령	공직 비리	법 행정	안보·남북관계	실물 경제	경제 정책	경제 위기	경제 동향	사회 안전	사회 갈등	교육	보건 복지	외교 국제	삶과 생각	언론 미디어	대중 문화 역사 과학	기타
진보지	보수 정권	51.1(212)					14.6(60)				15.8(65)				6.1(25)	9.7(40)			2.2(9)
		18.0(74)	17.5(72)	6.8(28)	4.4(18)	4.9(20)	5.8(24)	3.6(15)	4.4(18)	0.7(3)	8.0(33)	3.6(15)	2.4(10)	1.7(7)	6.1(25)	2.2(9)	5.6(23)	1.9(8)	2.2(9)
	진보 정권	42.9(178)					14.9(62)				16.9(70)				12.3(51)	9.4(39)			3.6(15)
		14.2(59)	6.5(27)	6.7(28)	6.3(26)	9.2(38)	6.0(25)	4.1(17)	3.6(15)	1.2(5)	6.3(26)	7.2(30)	2.4(10)	1.0(4)	12.3(51)	2.9(12)	4.3(18)	2.2(9)	3.6(15)
$\chi^2 = 13.570, df = 5, p < .05$ $\chi^2 = 48.228, df = 17, p < .001$																			
보수지	보수 정권	55.6(225)					16.8(68)				13.3(54)				8.1(33)	4.0(16)			2.2(9)
		22.5(91)	11.9(48)	5.2(21)	5.4(22)	10.6(43)	5.4(22)	5.2(21)	4.7(19)	1.5(6)	3.5(14)	3.7(15)	4.4(18)	1.7(7)	8.1(33)	0.2(1)	1.7(7)	2.0(8)	2.2(9)
	진보 정권	52.8(218)					16.9(70)				11.1(46)				10.9(45)	5.6(23)			2.7(11)
		15.3(63)	12.1(50)	5.6(23)	7.5(31)	12.3(51)	5.3(22)	5.1(21)	5.0(21)	1.5(6)	3.6(15)	2.2(9)	3.4(14)	1.9(8)	10.9(45)	0.7(3)	2.4(10)	2.4(10)	2.7(11)
$\chi^2 = 4.004, df = 5, p = n.s$ $\chi^2 = 13.354, df = 17, p = n.s.$																			

주요 일간지와 정부의 정파성에 따라 주의제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진보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보수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진보지 $\chi^2 = 13.570, df = 5, p < 0.5$, 보수지 $\chi^2 = 4.004, df = 5, p = n.s$) 진보지는 보수 정부일 때 정치 의제를, 진보 정부일 때 국제 의제를 더 많이 다루고, 보수지는 보수 정부일 때 정치, 사회 의제, 진보 정부일 때 외교·국제, 문화 의제를 더 많이 다루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주요 일간지와 정부의 정파성에 따라 세부 의제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진보지의 경우 진보, 보수 정부에 따라 세부 의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48.228, df = 17, p < .001$). 대통령과 정당정치 의제는 보수 정부에 비해 진보 정부에서 적게 다루지고, 안보·남북관계, 사회갈등, 외교·국제 의제는 진보 정부에서 더 많이 다루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대통령, 안보·남북관계와 사회갈등, 외교·국제 의제는 정부의 정파성에 따라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보수지의 경우 정부의 정파성에 따라 세부 의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chi^2 = 13.354, df = 17, p = n.s.$). 보수지의 경우 보수 정부일 때 진보 정부보다 정당정치를 더 많이 다루고, 진보 정부일 때 보수 정부보다 법·행정, 외교·국제를 더 많이 다루는 경향이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2) 주요 일간지 칼럼 의제 프레임

Table 7. Agenda Frame of Major Daily Newspaper Column

단위: %(건)

의제 프레임	빈도
책임귀인	44.0(760)
인간적 흥미	22.7(393)
도덕적 평가	14.5(250)
갈등	11.7(203)
경제적 결과	7.1(123)
합계	100(1729)

분석 대상 주요 일간지 칼럼의 의제 프레임은 책임귀인과 인간적 흥미 프레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책임귀인이 44.0%(760건)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인간적 흥미 22.7%(393건), 도덕적 평가 14.5%(250건), 갈등 11.7%(203건), 경제적 결과 7.1%(123건) 순이었다.

Table 8. Agenda Frame of Individual Major Daily Newspaper Column

단위: %(건)

	책임귀인	인간적 흥미	도덕적 평가	갈등	경제적 결과
경향신문	53.8(233)	21.9(95)	9.9(43)	11.8(51)	2.5(11)
조선일보	41.6(181)	29.0(126)	6.9(30)	14.5(63)	8.0(35)
중앙일보	39.9(170)	20.9(89)	21.4(91)	9.4(40)	8.5(36)
한겨레	40.5(176)	19.1(83)	19.8(86)	11.3(49)	9.4(41)
합계	44.0(760)	22.7(393)	14.5(250)	11.7(203)	7.1(123)

$\chi^2 = 92.00, df = 12, p < .001$

주요 일간지별 칼럼의 의제 프레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92.00$, $df = 12$, $p < .001$) <경향신문>은 책임귀인 프레임이 53.8%(233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는 4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조선일보>는 인간적 흥미(29.0%, 126건)와 갈등(14.5%, 63건) 프레임이 가장 많은 언론사였고, <중앙일보>는 도덕적 평가(21.4%, 91건), <한겨레>는 경제적 결과(9.4%, 41건)가 다른 언론사에 비해 많았다.

Table 9. Agenda Frame of Major Daily Newspaper Column by Period of Power

단위: %(건)

	책임귀인	인간적 흥미	도덕적 평가	갈등	경제적 결과
초기	45.8(210)	18.5(85)	14.2(65)	13.7(63)	7.8(36)
중기	42.4(231)	22.1(123)	16.3(89)	12.8(70)	5.9(32)
말기	43.8(239)	25.4(139)	13.0(71)	10.4(57)	7.7(42)
합계	43.8(680)	22.4(347)	14.5(225)	12.2(190)	7.1(110)

$\chi^2 = 12.369$, $df = 8$, $p = n.s.$

집권 시기별로 칼럼 의제 프레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집권 말기로 갈수록 갈등 프레임은 줄어들고 인간적 흥미 프레임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집권 중기에는 경제적 결과(5.9%, 32건), 책임귀인(42.4%, 231건)이 다른 시기에 비해 줄어든 반면, 도덕적 평가(16.3%, 89건)는 다소 늘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chi^2 = 12.369$, $df = 8$, $p = n.s.$)

Table 10. Agenda Frame of Major Daily Newspaper Column by Government

단위: %(건)

	갈등	경제적 결과	도덕적 평가	인간적 흥미	책임귀인
김영삼	7.1(17)	7.5(18)	21.7(52)	15.0(36)	48.8(117)
김대중	19.0(49)	13.2(34)	8.9(23)	19.0(49)	39.9(103)
노무현	14.5(55)	6.6(25)	12.1(46)	23.2(93)	43.5(165)
이명박	9.8(29)	5.4(16)	13.9(41)	27.1(80)	43.7(129)
박근혜	10.6(20)	5.8(11)	11.1(21)	28.6(54)	43.9(83)
문재인	9.7(28)	3.8(11)	18.4(53)	24.0(69)	44.1(127)
합계	12.0(198)	7.0(115)	14.3(236)	22.8(376)	43.9(724)

$\chi^2 = 75.925$, $df = 20$, $p < .001$

정부별 주요 일간지 칼럼 의제 프레임율을 살펴본 결과, 김영삼 정부는 책임귀인(48.8%, 117건), 도덕적 평가(21.7%, 52건) 프레임이 가장 많았고, 인간적 흥미(15.0%, 36건)와 갈등(7.1%, 17건) 프레임은 가장 적었다. 김대중 정부는 갈등(19.0%, 49건), 경제적 결과(13.2%, 34건) 프레임이 다른 정권에 비해 많았고, 책임귀인은 39.9%(103건)로 가장 적었다. 박근혜 정부는 인간적 흥미(28.6%, 54건) 프레임이 가장 많았고, 문재인 정부는 경제적 결과(3.8%, 11건) 프레임이 가장 적은 반면, 도덕적 평가(18.4%, 53건)는 다른 정권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정부별 의제 프레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chi^2 = 75.925$, $df = 20$, $p < .001$)

Table 11. Differences in Column Frame Between Major Daily Newspapers and the Government's Political Orientation

		단위: %(건)				
		책임귀인	인간적 흥미	도덕적 평가	갈등	경제적 결과
진보지	보수정부	52.6(216)	21.9(90)	14.4(59)	7.3(30)	3.9(16)
	진보정부	41.4(172)	19.3(80)	15.4(64)	16.4(68)	7.5(31)
$\chi^2 = 25.284$, $df = 4$, $p < .001$						
보수지	보수정부	37.8(153)	24.4(99)	17.5(71)	12.1(50)	7.9(32)
	진보정부	43.8(181)	25.9(107)	10.2(42)	12.2(50)	8.0(33)
$\chi^2 = 10.039$, $df = 4$, $p < .05$						

주요 일간지와 정부의 정치 성향별 칼럼 의제 프레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진보지와 보수지 모두 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의제 프레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진보지의 경우 진보 정부일 때 보수 정부보다 갈등 프레임이 2배 이상, 경제적 결과 역시 2배 가까이 높았고, 보수 정부에 대해서는 책임귀인 프레임이 10% 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성도 $p < .001$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보수지의 경우 진보 정부에 비해 보수 정부일 때 도덕적 평가가 높고, 진보 정부일 때 책임귀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p < .05$ 수준이었다.

6. 결론 및 함의

이 연구는 한국 주요 일간지 칼럼 주의제, 세부 의제와 프레임은 김영삼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28년간에 걸쳐 공식적, 통시적으로 내용 분석했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신문사별, 정부별, 정부 시기별, 신문과 정부의 이념별로 구분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신문 시사 칼럼은 다양한 프레임 구성을 통해 사회 문제를 평가하고 조명한다. 시민들은 신문이 강조해 현저하게 제시하는 프레임을 통해 특정 사회 문제를 해석하고 이해한다. 따라서 신문 시사 칼럼의 프레임은 사회 이슈의 성격과 방향을 가늠하는 평가 기준이 된다. 그런 점에서 연구 결과는 한국 주요 일간지 칼럼이 주로 정치 의제에 매몰되어 있으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책임귀인 프레임과 함께 대통령 또는 정치인과 같은 사람들의 권력 갈등에 대한 인간적 흥미 프레임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정치 뉴스가 권력의 합법적 행사와 과정을 감시하고, 비평하는 구조적 접근보다는 정치인 개인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 개인화와 극화 프레임으로 보도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Bennett, 2012)가 신문 칼럼에서도 그대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를 근거로 신문 시사 칼럼은 현실을 잘 반영하고, 다양한 의제를 사회적 공론장에 적절히 제공해야 한다는 저널리즘 책무와 관련해 몇 가지 이론적 함의점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신문들은 사회적 공론장인 시사 칼럼에서 정치 의제를 두드러지게 부각시키는 '정치 과잉보도 현상'이 발견되었다. 신문들은 칼럼의 주요 의제로 정당 정치와 대통령 비판 담론을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정치 의제를 우리 사회의 주요 담론으로 재구성해 제시했다. 국내 신문 시사 칼럼들이 정치 의제를 중심으로 사회 문제를 접근하고 해석하는 정치 담론의 편중성은 정치 문제에 대한 시민의 숙의와 토론을 가능케 하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정치 문제에 대한 냉소주의를 유발하거나 이념적 갈등을 사회적으로 증폭시킬 여지도 동시에 존재한다. 한국 사회에 퍼져있는 정치에 대한 깊은 불신과 소모적인 정치적 갈등은 신문 칼럼의 정치 의제 편중성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국내 신문 칼럼이 대통령 의제를 비판적 소재로 과도하게 다루고 있는 점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국내 신문들은 시사 칼럼 공간에서 대통령 의제를 지나치게 자주 다룸으로써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원인과 책임 제공자로, 그리고 해결 주체자로 부각하는 권위 무질서 편향(authority-disorder bias)을 드러낸다(Bennett, 2012).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해결해야 하는 '전능적 지위자'로 부여하는 칼럼의 담론 속성은 언론이 제왕적 통치문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 신문 시사 칼럼 의제가 정치를 포함해 경제, 사회 등 소수 의제에 편중됨으로써 의제의 다양성이 사회 공론장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신문 시사 칼럼이 정치사회적 쟁점에 대한 비평 기능을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와 같은 '경성 의제(hard agenda)'에 편중될 경우 독자들이 다양한 의제를 탐독하고 숙의할 기회를 갖기 어렵다. 신문 시사 칼럼이 특정 소수 의제를 편향적으로 선택해 제시할 경우 국제, 대중문화, 역사, 과학, 미디어 등 다양한 '소프트 의제(soft agenda)'는 의견 공론장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의제설정 과정에 이런 편향성은 독자들이 몇몇 특정 의제를 편식하게 되고, 자연히 다른 수많은 사회적 의제는 관심에서 사라지거나 잊혀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셋째, 신문 시사 칼럼 의제가 개별 신문사의 이념성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고 구성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보수신문이 정치나 권력 관계에 대한 담론 구성에 관심을 두는데 반해, 진보신문은 사회 안전과 재난, 사회 갈등 의제와 같은 사회적 담론을 선택함으로써 의제 형성에 차별성을 보였다. 이러한 신문사 간 시사 칼럼의 의제 형성의 차이는 한마디로 보수신문은 보다 '정치 지향적'이며, 진보신문은 보다 '사회 지향적'이라는 점을 시사해주며, 이는 이완수·양영유·배재영(2020)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보수신문은 칼럼을 정당 정치와 권력 관계에 대한 의제를 다루는 정치 공론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반해, 진보신문은 사회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노사·지역·젠더·가족과 같은 다양한 사회 갈등이나 불평등과 관련된 탈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과 해결, 그리고 제안을 하는 의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었다. 시사 칼럼은 자유로운 견해와 주장을 펴는 사회적 의견 공간이다. 신문 칼럼의 이런 기능은 자신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점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수신문은 정치 의제에, 진보신문은 사회 의제에 더 비중을 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의 이런 의제 구성의 차이에는 당시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철학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보수신문이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에 대한 의제 선택과, 반대로 진보신문이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에 대한 의제 선택의 유착적 편향성이 두드러진다(이완수 등, 2020). 신문 칼럼은 당시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질서와 함께 정부 또는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대해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기능을 한다. 언론은 의제 구성과정에 현실적으로 정부별 정책 의제나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배제하기 어렵다. 예컨대 김영삼 정부는 군조직(예: 하나회) 개혁과 같은 정치적 의제를, 김대중 정부는 평화와 통일 문제와 같은 안보 의제를, 노무현 정부는 지역균형과 탈권위주의와 같은 사회적 의제를, 이명박 정부는 기업의 성장에 집중하는 경제 의제를,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소수계층과 관련된 정책 의제를 국정 기조로 삼았으며,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신문 시사 칼럼 의제 구성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넷째, 정부 후반부로 갈수록 대통령 의제가 감소하고, 대신 정당 정치 의제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흥미로운 현상으로 여겨진다. 정부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으로 접어들수록 대통령 의제가 시사 칼럼의 의견 공론장에서 축소되고,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 기간이 임박하면서 정당 정치 의제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비평 기능을 하는 신문 칼럼은 시점에 따라 우리 사회의 특정한 방향과 쟁점을 선택적으로 강조한다. 시간별 의제 형성의 이런 변화는 언론이 뉴스 소비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시공간적으로 ‘의제 변화(agenda changing)’를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확인시켜 준다(Chyi & McCombs, 2004). 어떤 대상(혹은 인물)의 사회적 영향력이 줄어들수록 의견 공간에서 사라지는 ‘의제 변화’는 언론이 사회적 현실을 재구성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

다섯째, 신문 시사 칼럼에서 현저하게 강조되는 주요 프레임으로 ‘책임귀인’이 확인된 점은 칼럼이 우리 사회의 의제를 주로 책임 소재의 문제로 과도하게 접근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언론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책임귀인 프레임은 평균 40%가 넘었으며, 각 언론사별로 살펴봤을 때도 <경향신문>에서 프레임의 절반 이상이 책임귀인으로 나타났다. 정부마다 프레임 구성에 차이가 있었지만, 책임 프레임은 모든 정부를 관통하는 칼럼 의제의 핵심적인 프레임 요소였다. 사회가 주목해야 할 사회적 이슈를 의제로 제시하고,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다루는 것은 의견 기사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하지만 공적 현안에 대한 책임 소재를 유난히 강조하는 한국적 문화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한국 신문 칼럼들은 사회 문제에 대한 책임자를 지목하고, 이를 사회적 공론장에서 단죄하고 비판하는 기능에 더욱 치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 의제가 칼럼에서 특히 많았던 것도 바로 사회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론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오피니언 편집자들이 칼럼 의제를 선정할 때 새로운 통찰의 제시나 흥미로운 대안, 복잡한 이슈에 대한 명쾌한 설명 등 정보의 실용성을 증시하는 경향(Ciofalo & Traverso, 1994)과는 다르다.

여섯째, 시사 칼럼에서 의제 프레임이 신문, 정부, 그리고 시기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거나 구성된다는 점이다. 보수지인 <조선일보>는 인간적 흥미 프레임을, <중앙일보>는 도덕적 평가 프레임을, <경향신문>은 책임귀인 프레임을, 그리고 <한겨레>는 경제적 결과 프레임을 타 신문사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문의 개별적 이념성과 가치가 프레임 구성과정에 반영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또한 정부 초기에는 책임 귀인 프레임이 주로 등장하다가, 정부 후반부로 가면서는 인간적 흥미 프레임이 보다 빈번하게 등장한 점은 사회적 현실 구성주의 관점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 모든 정부의 초기에는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적 주체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비주요하게 거론되지만, 집권 말기에는 권력 갈등이나 개인적 비리와 관련된 의제가 제기되면서 주로 인간적 흥미 프레임으로 관심이 옮겨졌다. 이처럼 국내 신문 칼럼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

념성과 사회적 현실의 반영이라는 두 축을 통해 의제 프레임은 차별적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보수지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보수 정부에 대해서는 주로 도덕적 평가 프레임을 강조하지만, 반대로 진보 정부에 대해서는 책임귀인 프레임을 강조해 프레임 구성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 단적인 예이다. 진보지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진보 정부에 대해서는 갈등 프레임이나 경제적 결과 프레임을 제시하지만, 보수 정부에 대해서는 책임귀인 프레임을 현저하게 강조하는 것은 정치적 이념이 프레임 설정을 결정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것은 신문들이 자신들이 지지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의 방식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신문의 정치사회적 이념성에 따라 칼럼 프레임 구성에 차이를 보인 점은 언론의 보도가 정부의 이념성에 부합해 작동한다는 이른바 '언론-정부 병행주의' 경향을 보여준다.

신문 시사 칼럼은 사회적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비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하지만 이번 분석에서 나타난 의제 선택의 편향성, 정치 의제의 과도한 편중, 그리고 의제의 정치적 편향성은 국내 신문 시사 칼럼의 한계로 지적된다. 특정 의제(예: 정치)를 중심으로 정치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거나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정파적 문제에 편승하는 탈규범적 보도 태도는 문제다. 신문 시사 칼럼이 특정 정치집단이나 세력을 대변하거나 옹호하면서 언론 스스로 정치적 과장을 유발하는데 앞장서는 정파적 보도 태도는 시사 칼럼의 사회적 책임인 건강한 공론장 기능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국내 신문은 칼럼 의제 구성과정에 다양한 의제를 선택하는 동시에 정치적 의제를 과도하게 부각시키지 말아야 하며, 정치적 선동자처럼 보일 수 있는 의제와 관점의 편향성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신문 시사 칼럼의 역할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건강하고 생산적인 비평에 있는 만큼 특정 의제에 매몰되어 지면을 과도하게 정치화하거나 특정 정치집단과 유착되어 있다는 의심을 피해야 한다.

이 연구는 국내 일간지 시사 칼럼의 의제 구성과 프레임의 문제를 폭넓게 관찰했다. 하지만 신문 시사 칼럼에 나타난 사회적 맥락성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칼럼의 내용을 질적 분석을 통해 어떤 맥락에서, 어떤 표현과 기법을 통해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해석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신문 시사 칼럼을 보다 다양한 이론적 틀을 동원해 다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칼럼의 기능과 특성, 그리고 그 칼럼이 우리 사회에 제시하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제시해 볼 필요가 있겠다.

References

- Adeoye, A. O. (2014). Discourse construction of social reality in newspaper opinion articles on Chinua Achebe's death. *British Journal of Arts and Social Sciences*, 17(1), 1-13.
- Adoni, H., & Mane, S. (1984). Media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Toward an integration of theory and research. *Communication Research*, 11(3), 323-340.
- An, S. K., & Gower, K. K. (2009). How do the news media frame crises? A content analysis of crisis news coverage. *Public Relations Review*, 35(2), 107-112.
- Ansolabehere, S., & Iyengar, S. (1994). Riding the wave and claiming ownership over issues: The joint effects of advertising and news coverage in campaigns. *Public Opinion Quarterly*, 58(3), 335-357.
- Bae, I. (2003). *A study on conditions of newspapers' opinion columns in Korea and their improvemen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배인준 (2003). <한국 신문의 오피니언칼럼 운용 실태와 질 제고 방안>.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ack, Y., Kim, H., Hahn, K., Jang, S., & Kim, Y. (2016). Political ideology and partisan newspaper exposure: Comparative study between external columnists as opinion leaders and general public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0(1), 99-132. [백영민·김희정·한규섭·장슬기·김영석 (2016).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른 정파적 신문 노출: 여론지도층으로서의 칼럼기고자와 일반 대중 비교 연구. <한국언론학보>, 60권 1호, 99-132.]
- Bennett, W. L. (2012). The personalization of politics: Political identity, social media, and changing patterns of participation.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44(1), 20-39.
- Bennett, W. L. (2016). *News: The politics of illusion*.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nton, M., & Frazier, P. J. (1976). The agenda setting function of the mass media at three levels of "information holding". *Communication Research*, 3(3), 261-274.
- Berger, P., & Luckmann, T. (2016).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In W. Longhofer & D. Winchester (Eds.), *Social theory re-wired* (pp. 110-122). New York, NY: Routledge.
- Brosius, H. B., & Eps, P. (1995). Prototyping through key events: News selection in the case of violence against aliens and asylum seekers in Germany.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10(3), 391-412.
- Choi, J.-H., Kwak, D.-S., & Kim, S.-W. (2014). Analysis of media coverage on the nuclear crisis of Korean peninsula -Focused on domestic newspapers' editorial opinions and columns-. *Locality & Communication*, 18(2), 245-281. [최종환·곽대섭·김성욱 (2014). 북핵 위기의 미디어 담론 분석: 국

내 신문의 사설과 칼럼을 중심으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18권 2호, 245-281.]

- Chyi, H. I., & McCombs, M. (2004). Media salience and the process of framing: Coverage of the Columbine school shooting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1(1), 22-35.
- Ciofalo, A., & Traverso, K. (1994). Does op-ed page have a chance to become a public forum? *Newspaper Research Journal*, 15(4), 51-63.
- Cowart, H. (2020). What to think about: The applicability of agenda-settings in a social media context. *Agenda Setting Journal*, 4(2), 195-218.
- Day, A. G., & Golan, G. (2005). Source and content diversity in op-ed pages: Assessing editorial strategies in the New York Times. *Journalism Studies*, 6(1), 61-72.
- Entman, R. M. (1991). Framing U.S. coverage of international news: Contrasts in narratives of the KAL and Iran Air incidents. *Journal of Communication*, 41(4), 6-27.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s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Firmstone, J. (2019). Editorial journalism and newspapers' editorial opinions.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Communication*. doi:10.1093/acrefore/9780190228613.013.803.
- Fraser, N. (1990).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actually existing democracy. *Social Text*, 25/26, 56-80.
- Gamson, W. A. (1992). *Talking politic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New Left*.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olan, G., & Wanta, W. (2004). Guest columns add diversity to NY Times' op-ed pages. *Newspaper Research Journal*, 25(2), 70-82.
- Habermas, J. (1991).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Cambridge, MA: MIT Press.
- Hoffman, L. H., & Slater, M. D. (2007). Evaluating public discourse in newspaper opinion articles: Values-framing and integrative complexity in substance and health policy issue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4(1), 58-74.
- Hu, H. R. (2000). *Newspaper column in Korea*. Seoul: Korea Press Foundation. [허행량 (2000). <한국의 신문칼럼>. 서울: 한국언론재단.]
- Im, Y. J. (2013). An analysis of news frame on the attack against ROK ship Cheonan in the selected Korean

- daily newspapers. *Journal of Social Science*, 52(1), 251-285. [임양준 (2013). 한국 신문의 천안함 사태에 대한 프레임 비교 분석: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사설과 칼럼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2권 1호, 251-285.]
- Ireri, K. (2013). A study of newspaper columnists' framing of Kenyan politics in post-2007 election violence. *Ecquid Novi: African Journalism Studies*, 34(2), 109-127.
- Iyengar, S. (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amieson, K. H. (1993). *Dirty politics: Deception, distraction, and democracy*.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Kang, J. H., & Lee, I. W. (2014). Agenda and partisanship of political news reports widely read in portal sites : Comparative study on political news reports widely read in online newspapers.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31(2), 5-44. [강주현·이인옥 (2014). 포털뉴스에서 많이 읽힌 정치뉴스의 의제와 정파성 : 온라인 신문에서 많이 읽힌 정치뉴스와 비교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1권 2호, 5-44.]
- Kim, B. (2016).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newspaper editorials and columns on progressivism.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4(1), 65-90. [김병건 (2016). 신문의 사설·칼럼에 나타난 '진보'에 대한 비판적 담화 분석. <사회언어학>, 24권 1호, 65-90.]
- Kim, D. (2016, May 4). *Readable opinion pieces, so they evolve*. Journalists' Association Press of Korea. Retrieved 1/16/23 from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39071> [김달아 (2016, 5, 4). 읽히는 오피니언면, 그래서 진화한다. <기자협회보>.]
- Kim, S. H., Carvalho, J. P., & Davis, A. C. (2010). Talking about poverty: News framing of who is responsible for causing and fixing the problem.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7(3-4), 563-581.
- Kim, S. H., & Telleen, M. W. (2017). Talking about school bullying: News framing of who is responsible for causing and fixing the problem.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94(3), 725-746.
- Knight, M. G. (1999). Getting past the impasse: Framing as a tool for public relations. *Public Relations Review*, 25(3), 381-398.
- Kwon, J. H., & Ahn, C. (2016). The analysis of newspaper report on national four major rivers project: Major ideological papers' columns, editorials, and their frames. *Locality & Communication*, 20(3), 5-36. [권지현·안차수 (2016). 중앙 일간지 4대강 사업 보도에 대한 프레임 분석: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의

칼럼 및 사설을 중심으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0권 3호, 5-36.]

- Kwon, J. W., Choi, C. W., Lee, B. C., & Jang, H. Y. (2007). *Outside columns and columnists in Korean newspapers: Analyzing the topography of public opinion formation*. Seoul: Korea Press Foundation.
- [권장원·최철웅·이병철·장하용 (2007). <한국 신문의 외부 칼럼, 칼럼니스트: 여론 형성의 지형도 분석>. 서울: 한국언론재단.]
- Lau, R. W. K. (2012). Re-theorizing news' construction of reality: A realist-discourse-theoretic approach. *Journalism*, 13(7), 886-902.
- Lee, J. K. (2000, October).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opinion page*. Paper presented at the Samsung Press Foundation Seminar, Jeju. [이재경 (2000, 10월). <오피니언면의 현황과 발전방향>. 삼성언론재단 세미나. 제주.]
- Lee, W. S. (2010).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ditorials and the outsourced-columns.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0(2), 421-469. [이원섭 (2010). 국내 신문의 사외칼럼과 사설 논조의 상관관계 분석. <언론과학연구>, 10권 2호, 421-469.]
- Lee, W. S., & Shin, M. H. (2020). Media agenda building on the national economy: Salience and hierarchy of the agenda in newspaper and broadcasting economic news data(1998-2017).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4(5), 248-285. [이원수·신명환 (2020). 국가경제에 대한 미디어 의제 구성: 신문과 방송 경제뉴스 데이터(1998-2017) 분석을 통해 본 의제의 현저성과 위계성. <한국언론학보>, 64권 5호, 248-285.]
- Lee, W. S., Shim, J. W., & Shim, J.-C. (2008). Media salience and the dynamic process of news frame changing: Coverage of the Virginia tech shootings in Korea and the USA.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2(1), 386-412. [이원수·심재웅·심재철 (2008). 미디어 현저성과 프레임 변화의 역동적 과정: 버지니아 공대 총기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2권 1호, 386-412.]
- Lee, W. S., Yang, Y. Y., & Bae, J. (2020). Affiliation between the media and political parties: The media's asymmetrical agenda for reporting national audits by political parties.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26(2), 73-111. [이원수·양영유·배재영 (2020). 언론과 정당 간의 유착주의: 정당별 국정감사에 대한 언론의 편향적 의제구성 방식. <의정연구>, 26권 2호, 73-111.]
- Lim, Y.-H. (2011). Columns analysis in the opinion sections of local newspaper: With a focus on the Daejeon and Chungcheong newspaper. *Journal of Social Science*, 22(4), 31-53. [임연희 (2011). 지역신문 오피니언 면 칼럼분석: 대전·충청 일간신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2권 4호, 31-53.]

- Lippmann, W. (1922). *Public opinion*. New York, NY: Harcourt, Brace and Company.
- McCombs, M. E., & Shaw, D. L. (1972).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mass media. *Public Opinion Quarterly*, 36(2), 176-187.
- Mellado, C., & Van Dalen, A. (2017). Changing times, changing journalism: A content analysis of journalistic role performances in a transitional democracy.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22(2), 244-263.
- Mikhailova, Y. (2011). Electronic media and popular discourse on Russian nationalism. *Nationalities Papers*, 39(4), 523-546.
- Muschert, G. W., & Carr, D. (2006). Media salience and frame changing across events: Coverage of nine school shootings, 1997–2001.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3(4), 747-766.
- Naoroz, C., & Cleary, H. M. (2021). News media framing of police body-worn cameras: A content analysis. *Policing: A Journal of Policy and Practice*, 15(1), 540-555.
- Neuman, W. R., Just, M. R., & Crigler, A. N. (1992). *Common knowledge: News and the construction of political meaning*.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isbet, M. C. (2008). Agenda building.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Communication*, 1, 140-145.
- O’neill, D., & Harcup, T. (2017). What is news? News values revisited (again). *Journalism Studies*, 18(12), 1470-1488.
- Park, J. E. (2019, August 9). *The biggest twist on the plainest page... Opinion page becomes a ‘hot place’*. Journalists’ Association Press of Korea. Retrieved 1/16/23 from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6501> [박지은 (2019, 8, 9). 제일 밋밋한 지면의 대반전... ‘핫플레이스’ 된 오피니언면. <기자협회보>.]
- Park, R. E. (1922). *The immigrant press and its control*. New York, NY: Harper & Brothers.
- Park, S., Kim, K., & Ko, M. (2010). An analysis of gender inequality in the op-ed pages of Korean newspaper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4(1), 55-81. [박선아·김경모·고민경 (2010). 한국 신문 오피니언 칼럼의 젠더 특성 분석: 여성 필자의 과소 재현과 성 불평 등 구조. <한국언론학보>, 54권 1호, 55-81.]
- Rogers, E. M., Dearing, J. W., Rao, N., Campo, S., Meyer, G., Betts, G. J. F., & Casey, M. K. (1995). Communication and community in a city under siege: The AIDS epidemic in San Francisco. *Communication Research*, 22(6), 664-678.
- Semetko, H. A., & Valkenburg, P. M. (1998). The impact of attentiveness on political efficacy: Evidence

- from a three-year German pane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0(3), 195-210.
- Semetko, H. A., & Valkenburg, P. M. (2000). Framing European politics: A content analysis of press and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50(2), 93-109.
- Serino, T. K. (2010). 'Setting the agenda': The production of opinion at the Sunday Times. *Social Dynamics*, 36(1), 99-111.
- Sheafer, T., & Weimann, G. (2005). Agenda building, agenda setting, priming, individual voting intentions, and the aggregate results: An analysis of four Israeli elections. *Journal of Communication*, 55(2), 347-365.
- Song, E. J., & Lee, G. (2014). Analysis of news coverage about president's interference with electoral proces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8(3), 228-250. [송은지·이건호 (2014). 대통령의 선거개입 이슈 보도. <한국언론학보>, 58권 3호, 228-250.]
- Soroka, S. N. (2002). Issue attributes and agenda-setting by media, the public, and policymakers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4(3), 264-285.
- Tagle, F. (2021). Generic frames in corruption scandals in Chile (2015–2019):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print and online media.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15, 22.
- Takeshita, T., & Mikami, S. (1995). How did mass media influence the voters' choice in the 1993 general election in Japan? A study of agenda setting. *Keio Communication Review*, 17(3), 27-41.
- Tankard, J. W., Jr. (2001). The empirical approach to the study of media framing. In S. D. Reese, O. H. Gandy, Jr., & A. E. Grant (Eds.), *Framing public life* (pp. 111-121). New York, NY: Routledge.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NY: Free Press.
- Valkenburg, P. M., Semetko, H. A., & De Vreese, C. H. (1999). The effects of news frames on readers' thoughts and recall. *Communication Research*, 26(5), 550-569.
- Wahl-Jorgensen, K. (2004). A "legitimate beef" or "raw meat"? Civility, multiculturalism, and letters to the editor. *The Communication Review*, 7(1), 89-105.
- Wasserman, E. (2022, 7, 8). *The nation's biggest newspaper chain wants to scale back its opinion pages. That is a grave mistake*. San Francisco Chronicle. Retrieved 1/16/23 from <https://www.sfchronicle.com/opinion/openforum/article/The-nation-s-biggest-newspaper-chain-wants-to-17290934.php>
- Weaver, D., & Elliott, S. N. (1985). Who sets the agenda for the media? A study of local agenda-building. *Journalism Quarterly*, 62(1), 87-94.

- Won, S.-K., & Moon, J.-D. (2016). A comparative study of the news frame on four major rivers project: Focused on the editorial and op-ed columns of six major local press in Youngnam. *Locality & Communication*, 20(3), 65-91. [원숙경·문종대 (2016). 4대강 사업에 대한 시기별 뉴스프레임 비교 연구: 영남 지역 6개 신문의 사실과 칼럼을 중심으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0권 3호, 65-91.]
- Woods, J. (2015). The op-ed sociologists: The Matthew effect in op-ed publication patterns. *The American Sociologist*, 46(3), 356-372.
- Yang, Y., Lee, W., & Bae, J. (2020). How does the media portray the reality of the Korean education system?: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a's "reframing" of the TV drama series, SKY Castle. *Broadcasting & Communication*, 22(1), 76-115. [양영유·이완수·배재영 (2021). TV 드라마 의제의 일간신문 뉴스로의 전이과정: <SKY 캐슬>이 재현한 한국 교육현실을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2권 1호, 76-115.]

최초 투고일 2022년 12월 16일
게재 확정일 2023년 08월 02일
논문 수정일 2023년 08월 04일

부록

Appendix 1. 주의제, 세부 의제의 조작적 정의와 사례

주요제	세부 의제	조작적 정의와 사례
정치	정당정치	정당과 정당 정치, 각종 공직 선거와 관련된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는 칼럼. 예를 들어 국회, 여야대립, 정쟁, 정치인 활동, 정당 공약, 여소야대, 국회 청문회, 대선, 총선, 지자체 선거, 선거 운동, 공천 비리, 부정선거, 낙선운동, 선거 제도 등
	대통령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정운영 문제,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주장하거나 확인된 비리를 주요하게 다루는 칼럼. 예를 들어 공직인사, 정부개혁, 국책사업, 청와대 관리, 정상외교, 최순실 국정농단, 대통령 비자금, 친인척 비리, 대통령 측근 게이트, 대북송금, 국정원 사찰, 청와대 인사 권력남용 등
	공직 비리	주요한 공직이나 국가기관의 비리, 경찰, 검찰, 사정 기관 같은 공권력의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는 칼럼. 예를 들어 정치인 비리, 군비리, 법조 비리, 지자체 비리, 기업 비리, 판검사 비리, 감사원 감사 결과, 사법개혁, 검경 갈등, 과잉/불법 수사, 고문, 수사권 분쟁, 공수처 등등. 음주운전, 성희롱 같은 개별 공무원 차원의 범죄와 처벌은 범죄기사로 분류.
	법 행정	특정 법률과 제도의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는 칼럼. 예를 들어 사학법, 신문법, 공정거래법, 민식이법, 낙태금지법, 법률 위헌성, 인사청문회제도, 취재선진화제도 등.
	안보·남북 관계	남북한 관계나 통일 문제, 북한 사정,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는 칼럼. 예를 들어 남북대화, 남북협력, 통일 구상, 북한 정세, 탈북자 문제, 북한 도발, 북핵/미사일, 천안함, 한미동맹, 국방, 한미연합훈련, 전작권, 사드, 중국 위협, 일본 재무장 등. 등
	외교	외교와 관련된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는 칼럼. 예를 들어 한미·한일·한중 관계, 4차회담, 북미회담, FTA, 쇄고기협상, 쌀시장 개방, 해외파병, 역사/영토문제 등
경제	실물 경제	경제 문제 가운데 개별 기업, 고용, 일자리,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문제, 금융시장과 금융기업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는 칼럼. 예를 들어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 오피, 경영, 경영권 승계, 일자리, 청년실업, 비정규직, 취업난, 구안난, 땅값/집값 등락, 주택공급, 신도시 건설, 전세난, 토지공개념, 부동산 투기, 은행, 주식시장, 외환시장, 금융 건전성, 금융 감독, 주식투자, 은행, 증권사, 보험사, 재테크, 빈부격차, 경제 양극화, 경제력 집중, 재벌 문제, 소득 격차, 최저임금등
	경제정책	정부의 경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주요하게 다루는 칼럼. 예를 들어 소득주도성장, 성장/분배 정책, 재정정책, 통화정책, 구조조정, 경기조절, 세제, 국가경쟁력, 규제 정책 등
	경제동향	경제의 전반적인 동향을 주요하게 다루는 칼럼. 예를 들어 성장률, 경기, 수출입, 물가, 투자, 경기동향 통계 등
	경제위기	경제 위기를 다루거나 특정 경제 현안을 심각한 위기 차원에서 다루는 칼럼. 예를 들어 외환 위기, 금융 위기, 경제 불안, 가계부채, 국가부채, 카드대란 등
사회	사회안전	사회의 정상적 상태에서 이탈하거나 사회를 병들게 하는 사회적 병리현상, 인간의 환경 조건을 악화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 자연에서 발생한 대형 재난, 각종 범죄, 사회에서 발생한 대형 재난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는 칼럼. 예를 들어 자살, 마약, 폐문, 퇴폐, 사치, 향락,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온난화, 기후변화, 지진, 태풍, 홍수, 집중호우, 산불, 가뭄, 원전사고, 미세먼지, 쓰레기, 살인, 폭력, 마약, 유괴, 사기, 방화, 성폭력, 군충기사고, 도박, 횡령, 배임, 사이버 범죄, 세월호, 삼풍사고, 지하철침사, 비행기침사, 화재, 폭발, 가슴기 사고, 안전사고, 산재 사고 등
	사회갈등	특정한 현안과 목표를 놓고 경합하는 집단간 갈등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는 칼럼. 예를 들어 이념대립, 노사갈등,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지역 갈등, 의약분업, 역사교과서, 조국사태, 사법갈등, 촛불집회, 시위 등
	교육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는 칼럼. 예를 들어 대입, 사교육, 공교육, 초등 중등 고등 교육, 대학, 학교폭력, 전교조, 교권 침해, 영어교육, 사학비리, 등록금, 인재 양성 등
	보건복지	질병과 보건, 복지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는 칼럼. 예를 들어 코로나, 사스, 독감, 구제역, 비만, 암 등 각종 질병 등
국제	국제	다른 나라의 중요 이슈나 국가간 관계를 주요하게 다루는 칼럼. 예를 들어 미중갈등, 테러, 미국 흑백차별, 해외 지도자, 내전, 종교 갈등, 인종 갈등 등

문화	언론·미디어	미디어와 언론의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는 칼럼. 예를 들어 디지털 미디어, 포털, 플랫폼, SNS, 인터넷, 온라인, 신문, 방송, 언론 자유, 언론 횡포, 정파성, 편향 보도, 선정성 등
	대중문화·역사·과학	국내 대중문화, 역사, 과학 등의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는 칼럼. 예를 들어 한류, K팝, 영화, 음악, 드라마, 연예인, 대중문화 산업 등
	삶과생각	삶, 일상에 대한 소회를 주로 다루는 칼럼. 예를 들어 나이가 들어가는 것, 고향 방문, 가족, 골목식당, 피서, 두려움 등
기타		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는 칼럼.